

총 평

이번 제 125 회 전산회계 1 급 시험은 최근 3 개년 기출 흐름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1 급 수험생에게 필요한 핵심 개념을 폭넓게 점검한 시험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반복 출제되는 주요 논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이론시험에서는 재무상태표 계정 구분, 유가증권 분류, 유형자산 감가상각,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 원가와 부가가치세법 등 1 급의 주요 범위가 비교적 고르게 다뤄졌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보통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주 낯설거나 계산이 과도하게 복잡한 편은 아니었지만, 전산회계 1 급 특유의 넓은 출제 범위 때문에 단순 암기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회차에서도 반복적으로 출제된 재고자산, 유가증권, 유형자산·무형자산, 수익 인식, 회계순환과정 관련 논점이 이번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기출을 충실히 반복한 수험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차는 고난도 신유형보다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실무시험 역시 최근 전산회계 1 급의 전형적인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기초정보와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 입력, 결산정리, 조회문제로 이어지는 흐름은 익숙했지만, 실제 득점은 세부 처리의 정확성에서 갈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조업 법인을 배경으로 비용 구분, 부가세 처리, 외화환산, 미수수익, 법인세 등과 같은 결산 논점이 포함되어 있어, 입력 순서와 계정과목 선택, 결산수정분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최근 기출에서도 반복되어 온 결산 항목이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무 고득점의 핵심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아는 것보다 반복 출제되는 결산 주제를 실수 없이 처리하는 능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제 125 회 전산회계 1 급 시험은 최근 기출 흐름에 충실한 표준적인 시험이었으며 동시에 1 급 수험생에게 필요한 넓은 범위와 정확한 적용력을 함께 요구한 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범위를 무작정 넓히기보다는 최근 기출에 반복 등장하는 유가증권, 재고자산, 유형자산·무형자산, 수익 인식, 결산정리, 원가·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함께 정리하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대리 전산세무회계 → <https://cafe.naver.com/choidairi>

와우패스 회계/세무 → <https://wowpass.com/TAXACCOUNT>

여러분들의 목표를 와우패스&최대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